

# 여기까지 도우셨다

Thus Far God Has Helped Us

사무엘상 7:1-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7월 3일 설교

<sup>1</sup>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와 그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sup>2</sup>궤가 기랴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년 동안은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sup>3</sup>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삼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sup>4</sup>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삼기니라. <sup>5</sup>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sup>6</sup>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sup>7</sup>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sup>8</sup>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sup>9</sup>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sup>10</sup>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sup>11</sup>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더라. <sup>12</sup>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sup>13</sup>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sup>14</sup>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 블레셋 민족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어언 삼백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젃과 꿀이 흐른다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인데 정작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삶은 생각만큼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은 다 없애라 하셨는데 안 없애고 많이 남겨 두었습니다. 이방의 우상도 다 없애고 절대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방 민족의 우상을 마치 내 것인 양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이용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빼앗아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가거나 죽이기도 하니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 그제야 하나님께 잘못했다 빌면서 살려 달라 애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곧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고 수백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잘못된 다음 매 맞고, 매 맞은 다음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 이내 죄에 빠지는 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사사가 되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주로 괴롭힌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핵심 민족으로서 오늘날 그 땅을 부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도 이 민족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한두 번 집적거리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이 민족은 싸움도 잘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오래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 그 땅에 발을 디뎠을 때도 블레셋 민족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고 (창 21:32, 34)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간 것도 전쟁을 잘 하는 블레셋 민족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 13:17).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블레셋이 괴롭혀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해 구원한 일이 있었고 (삿 3:31)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특별한 사사를 세우신 것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 얼마 뒤였습니다. 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삼상 4:9) 갈등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쪽이 진을 친 다음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졌습니다.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는 영리합니다. 그런데 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같이 안 가셔서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싸움터에 갖고 가자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약궤만 갖고 가면 이길 거라 생각한 건데 이거 미신입니다. 심각한 판단착오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겨루기도 하고 강한 신이 약한 신을 누르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마다 자기 지역에서는 특히 힘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의 하나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한테 영향을 받아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이방 신 가운데 하나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호와와 언약궤가 싸움터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이겼다 이 말이지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뚱한 길로 가는데 백성인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적군의 신이 왔는데 이 신은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신입니다. 큰 일났습니다. 그렇지만 물러설 수야 없지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는데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는데 첫 싸움에서 사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삼만 명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갖고 간 언약궤도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적에게 생포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돌아온 언약궤

참담한 패배를 경험한 그날 군인 말고도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들인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는 바람에 거기까지 따라 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라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 갑자기 출산을 하면서 그 충격으로 또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죽기 직전 아이 이름을 이가봇, 곧 이카보드라 지었습니다. “카보드”는 히브리어로 영광입니다. “이”는 아니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영광은 엘리 집안을 떠났지 이스라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미 경고하신 대로 엘리 집안이 완전 멸망을 당함으로써 사무엘이라는 새 지도자가 등장했고 이 싸움에서 짐으로써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싹터 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승리를 주신 다곤 신에게 선물로 바친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여호와와 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긴 신이 진 신한테 엎드려 절을 하다니요? 그래서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 다곤이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몸뚱이만 엎드려 있고 머리랑 팔다리는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인 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예그론으로 옮겼더니 예그론 사람이 죽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으니 블레셋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곱 달을 그렇게 난리를 친 뒤 결국 여호와와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갖은 격식도 갖추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돌아왔습니다. 오긴 왔지요. 그렇지만 처음 벤세메스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 보았다가 벌을 받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었던 기간이 일곱 달입니다. 그런데 그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스무 해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립니다. 전에는 해마다 절기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도와 달라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못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 빼앗겼는데 찾아올 때는 우리가 다시 빼앗아온 게 아니고 적이 못 견뎌 돌려 보냈습니다. 무슨 염치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겠습니까? 함부로 열었다가 많이 죽어 겁도 났습니다. 게다가 엘리 식구가 다 죽은 지금은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십 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도와 달라 기도도 못 하면서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구하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도 섬겼던 것 아닙니까? 우상을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대적 블레셋이 곁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어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모두가 깨달았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여호와를 다시 섬기고 싶거든 먼저 우상부터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블레셋이 무섭다면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다 없애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토록 우려하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와의 궤만 갖고 가면 이긴다고 미신 같은 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했습니다. 우상은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 오자 우레를 발하셔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은 저 혼자 싸움에 저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 에벤에셀

적이 도망을 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낸 다음 미스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돌을 하나 세우고는 그 돌을 가리켜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가 어디니까? 에벤에셀을 세운 곳은 미스바와 쉰 사이라 했는데 성경에도 자세히 안 나오고 또 흔적도 없어 거기가 어디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 역사적인 현장인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지순례라도 갈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 모르게 하신 거겠지요. 거기가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전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부른 그 곳은 이십 년 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삼상 4:1).

이십 년 전 졌던 곳에서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그 때도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보려 했지만 그 때는 여호와께서 안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왜 안 도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제든지 도우려 하시는데 내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민족한테 당하는 건 싫어 언약궤를 갖고 가서라도 이겨 보려 했지만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데 내가 애쓰다고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 127:1).

그 때는 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때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지난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도와 주셨습니다. 그냥 물리치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예 얼씬도 못 하게 하시고 전에 빼앗긴 땅까지 되찾게 하셨습니다.

## 도움의 돌

에벤에셀은 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오랜 세월 괴롭히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장소는 같은데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에벤에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전혀 다른 뜻을 갖습니다. 결국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을 세워야 할 곳은 바깥 저기가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뜻을 담는 곳입니다. 전에 패배했던 곳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일구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되는구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마음이 곧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이랑 문기둥에 적으라 하신 이유가 뭘니까? 그렇게 곳곳에 적어 놓음으로써 결국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신 6:6-9).

왜 여러 민족 가운데 하필 블레셋인지 그것도 깨닫습니다. 블레셋은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곁에 있어 방해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도 방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때 크게 패한 뒤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못 쳐들어 왔지만 사울이 왕이 될 무렵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사울과 아들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국이 건설된 다음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나라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오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쉽게 물리쳐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금방 쳐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 때 졌다가 사무엘 때 이겼습니다. 사울 때는 또 졌다가 다윗 때는 또 물리쳐 이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 이기고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섬기고 돈을 섬기면 금방 나를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열한 살이 되었습니다. 생일은 태어난 뜻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뜻이야 다 같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데 뜻이 있고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것 역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자 함이니 오늘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 곳과 이긴 곳이 같은 장소입니다. 차이는 내 마음, 내 믿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 졌는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긴 곳이 곧 우리 에벤에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정욕을 믿고 내 고집을 믿고 내 자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해 보였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았습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고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 온갖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전에 못 하던 사랑을 이제는 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랑도 용서도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에벤에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젓 먹는 어린양을 먼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된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 말고는 드릴 게 없지요.

남모르는 죄에 빠져 큰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로 온 백성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희희낙락하다가 크게 혼이 난 다음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나를 책망해 준 사람도 반드시 있겠지요? 내 힘으로 애를 쓰다가 쓰다가 안 되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주변의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전달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나 개인의 에벤에셀이 교회의 에벤에셀이요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곧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 나의 에벤에셀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사고나서 다치거나 병 걸릴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마귀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옛날의 블레셋이 오늘도 내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도 교회도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을 수도 있고 블레셋이 내 마음에 쳐들어와 쓸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려 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은 삶 곳곳에 도움의 돌이 우뚝 우뚝 서 있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패배하기만 했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보고 도움의 돌을 하나씩 돌씩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마음 가장 깊은 구석에도 도움의 돌을 세우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벤에셀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신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안 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도우신 곳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내가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심한 미스바 바로 곁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더욱 힘입어 더 많은 승리, 더 큰 승리를 거듭하여 더 많은 도움의 돌을 쌓아갈 수 있다면 십일 년 전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